

■전례성가: 입당 421 | 봉헌 249 | 성체 180 | 파견 473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8,23c—9,3

23 옛날에는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이다. 9,1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2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이 하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3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멍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0-13.17

10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11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12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3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17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겨주려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2-23

12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14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5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20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21 거기에서 더 가시다 예수님께서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22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23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 공지사항

▪ 작년에 가져가셨던 성지(聖枝)를 가져와 회수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재의 수요일 19:30 미사에 사용할 재로 만듭니다.

▪ 2월 15일(주일) 설 명절 합동 위령 미사 안내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 형제, 친지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미리 미사예물봉투를 작성하여 교무금함 또는 제대부 봉사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 보편지향기도 끝에 연도를, 봉헌 때 분향을 합니다. * 살아있는 이를 위한 미사(생미사)도 봉헌 가능합니다. 미사 신청 지향은 게시판에 미사 당일 공지됩니다.

▪ 미사 해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담당: 최낙현 미카엘 해설단장

▪ '성 프란치스코의 해' 특별 희년 선포 및 순례시 전대사 부여

- 1) 장소: 성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수도회 성당이나 교구 성당, 경당
- 2) 방법: 고해성사와 미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등을 바침
- 3) 기간: 1/10/2026 - 1/9/2027

■ 우리들의 정성 (01/18/2026)

▪미사 봉헌금: \$687.00 | ▪교무금: 김세동(1), 김양후(1), 김진국(1), 윤은숙(1), 장재원(1), 정명호(1), 노기성(IU), 이미경(IU), 익명(IU).

교무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한달 중 하루의 수익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자는 취지로 자신의 한달 수입의 1/30(3.3%)이라도 책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납부시 교무금 봉투에 '한글 이름', '세례명', '금액', '납입하는 월'을 정확하게 적으신 후 교무금함에 넣어 주세요. 납입 내역은 다음 주 주보, 월별로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2025년 의무를 다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책정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anuary 25, 2026 연중 제3주일

나(이사 49,5).

! (Is 49,5).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성 당 : 753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 (317) 542-0863 (문자메시지 가능하며, 선호합니다)
- 홈페이지 : indykcc.org | 이메일 : indykcckorea@gmail.com
- 사제관 : 7556 E 46th St. Indianapolis, IN 46226
- 사목회장 : 공성현 니콜라오 | 담당신부 : 김병조 베드로
- 주일미사 일요일 오전 11시 | 평일미사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전례 봉사자

	연중 제3주일(1/25)	연중 제4주일(2/1)	연중 제5주일(2/8)
해설	최낙현 미카엘	장선애 마리아	황현성 요셉
독서	김유민 서예슬		
복사	-	-	-
반주	최아영 아녜스	-	-
제대	곽동화 데레사	-	-
예물			

> Winter storm으로 미사 못함.